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해양수산부		배포 일시	2019. 9. 3.(화)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어선정책팀	담당자	• 팀장 김종모, 사무관 김도한, 주무관 이형록 • ☎ (044) 200-5505, 5523, 5524	
보 도 일 시		2019년 9월 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3.(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더 편하고 안전해진 어선용 구명의 나왔다

- 4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연회 개최... 어업 효율 및 안전성 높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일(수) 해양안전엑스포 계기에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홀에서 착용감과 안전성이 향상된 어선용 구명의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어선용 구명의 시연회에서는 시제품 착용시험, 다이빙 시험, 전·후면 입수시험, 전시회 등을 통해 새로운 어선용 구명의의 향상된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의 어선용 구명의는 국제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통용되는 SOLAS급* 구명의로, 부피가 크고 활동성이 떨어져 착용률이 낮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 작업복을 대체하여 안전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어선용 구명의를 제작할 수 있도록 2019년 7월에 관련 기준**을 개정하였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 설비기준, 어선설비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선상 작업 시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색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반사판 등을 부착하여 야간에 구조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량 및 치수 제한규정을 없애 형태와 소재를 다양화하고 어선(낚싯배 제외)의 법정 비품으로 인정되도록 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어선용 구명의는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구명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버클이나 줄 등을 최소화하여 그물 걸림을 방지함으로써 어업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였다.

이 구명의는 현재 시제품 개발까지 완료된 상태로, 올해 말 생산을 시작하여 2020년부터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용 구명의의 착용감과 안전성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착용률이 높아져 인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어선용 구명의 시연회 개요>

- 일시/장소: 9. 4.(수) 11:00~12:00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홀
- 주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주요내용: 새로 개발된 어선용 구명의(긴팔, 반팔, 조끼형) 착용방법 등 시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